

손명수 차관 ‘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와 간담회 개최’

- 20일 버스업계 대표 만나 방역 체계 점검, 승객 감소 등 현장의견 청취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(목) 버스연합회를 찾아 버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.
 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,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.
 - 손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최소화와 이용객 보호를 위해 버스, 터미널 및 차고지에 대한 방역, 버스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버스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.
- 버스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버스 업종별로 이용객이 10~40%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정부의 금융 및 재정지원, 수요변화를 감안한 탄력적 운행횟수 조정 등을 건의하였다.
- 이에 손 차관은 범정부적 코로나19 지원 대책인 중소·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, 수요 감소가 큰 고속·시외버스 등에 대해서는 서민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 운영을 허용하며,
 -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버스 운행손실 보전금 등 약 1,000억원 규모의 버스 재정 지원을 1/4분기 중 조기 집행하거나 선지급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앞으로도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업계의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.

2020. 2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